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불상의 호상과 지면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있어 조각이 훼손되지 않아 '5cm의 기적'이라고 불리운다.



신라 호국 기림 천룡사지 삼층석탑.



열암곡 석불좌상에 대해 최민희 소장이 답사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남산 불적 답사 회원들.

# 남산의 수많은 성보들, 고요히 法悅 이루니...

## 신라 호국 신앙을 찾아서

완연한 겨울이다. 남도에도 찬바람이 거세다. 경주 남산도 녹음을 벗어내고 그 속살을 내보였다. 옷깃을 철로 여미게 하지만 답사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 울창한 녹음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문화재와 주위 풍광의 조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마지막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 불적 답사는 '신라 호국 신앙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렸다. 가장 먼저 답사단이 찾은 곳은 가장 최근 유명세를 탔던 '열암곡 마애불'이다.

### 마애불, 왜 차양막으로 가렸나

2007년 발견된 마애불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의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3호)의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한 발굴 조사 중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불상은 앞으로 넘어져 있었으나 불상이 조각된 면이 지면과 아슬아슬하게 이격되어 그 모습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들어 세간은 '5cm의 기적'이라고 찬탄하기도 했다. 마애불은 그 무게만 약 70t에 이르러 암석을 이용해 고부조(高浮彫)했으며 현재 암석의 남쪽 면 바위틈을 통해 대좌와 왼쪽 다리 및 가슴 2여개 일부를 볼 수 있는 상태다.

본래는 바로 세우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세우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상태 그대로이다. 현재는 보존을 위해 암석 전체를 철제 울타리와 검은 차양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보를 검은 차양막으로 둘러친 모습이 웅장스럽다. 마애불의 모습도 차양막 사이사이 구멍으로 겨우 확인할 수 있게 한

점도 아쉽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상의 규모는 대좌에서 목까지가 430cm이며, 지면에 묻혀있을 불두(佛頭)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크기는 약 500cm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상의 형태와 주변 유적인 열암곡 석불좌상과의 관계로 미뤄 마애불의 조성 시기는 석불좌상과 같은 시기인 8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애불들이 수많은 세월의 풍화를 겪으면서 마모와 박락이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열암곡 마애불은 기적적으로 상태가 온전히 보존돼 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양막 구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불상의 측면 호상을 보아도 예술적 가치가 높음을 문외한도 쉽게 알 수 있다. 오탁한 낫날과 날렵한 눈매, 풍부한 양감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 성에 갇힌 부처님... 문화재 복원 현주소

마애불 바로 위에는 열암곡 석불좌상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열암곡석불좌상은 8~9세기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2005년 10월 불두(佛頭)는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광배(光背)는 불상 뒤편으로 넘어져 크게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경주시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07년 열암곡석불좌상에 대한 정비작업을 시작해 2009년 마무리했다. 현재 상태를 보면 불두와 깨진 광배, 하대석(下臺石) 조각들을 접합 복원했고, 대좌(臺座)의 부재 중 유실된 중대석(中臺石)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불상 형식에 따라 재현해 3단의 8각 연화대좌(蓮花臺座) 위에 석불좌상이 안치됐다.

불두는 보존처리 후 불신(佛身)에 붙이고 10여 조각으로 깨진 광배는 구조보강 작업을 거쳐 접합했다.

불상에 대한 복원은 잘 이뤄졌지만 문제는 주위 경관과의 조화이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연구소장은 열암곡석불좌상이 가지는 위치와 환경이 남산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산의 불상과 탑은 세상을 굽어보거나 부처님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산 자체가 탑의 기반이었으며, 수미산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열암곡석불좌상의 주위를 보면 축대를 쌓아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남산이 가지는 신앙적 상징성을

### '5cm 기적' 찬탄 열암곡 마애불

날렵한 낫날·눈매... 아름다움 감탄  
축성으로 주변 복원 아쉬움 커

### 호국도량 천룡사, 탑만 덩그러니

국운을 좌우했다는 전설만 남아

감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법문을 설하 실 부처님을 성 안에 가둔 행위입니다."

### 남산이 감춰놓은 절터와 불상

열암곡을 나와 심수곡으로 향했다. 수북히 쌓인 낙엽들이 미끄럽다. 미끄러움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낙엽들로 인해 땅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점이다. 실수로 발을 잘못 딛으면 땅이 푹 꺼지는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인생사, '조고각하(照顧脚下, 발 밑을 살피 그 자리를 돌아보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백운계와 심수곡 사이에는 절터와 유구들이 산재해 있다. 그중 온전하게 살필 수 있는 문화재 중 하나가 경주침식곡석불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2호)이다. 심수곡 평지에 위치한 석수암 사지에 있는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불은 석굴암 본존불의 형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여래좌상으로 머리와 광배가 없어졌지만 전형 형식의 삼단대좌를 갖추고 있다. 목에 삼도(三道)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대의는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착용했고 옷 주름은 금속판을 포개놓은 듯 폭이 넓다. 양다리 사이의 부채살 주름도 부처의 신상(身上)과 한 몸으로 조각돼 있다.

불상 전면에는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기와편이 산재하고 있어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천룡사지, 웬지 모를 쓸쓸함

백운계를 지나면 고위봉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나온다. 고위봉 아래에는 신라 호국의 대가람이었던 천룡사가 있던 터가 나온다. 기록에 따르면 천룡사는 고위산을 뒤로 하고 약 20만평의 대지로 넓게 조성돼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는 따로 천룡사편이 마련돼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천룡사는 신라 문무왕 이전에 이미 건립돼 있었으며, 사명(寺名)은 절을 지은 사람이 딸의 이름인 천녀(天女)와 용녀(龍女)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천룡사는 국가의 명운과 관련이 있던 신성한 사찰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중국 당나라 사신 악봉구(樂鵬龜)가서와 와보고 말하기를 "고위산 천룡사가 파괴되면 곧 나라가 망하리라"고 예언했다. 실제 신라 말엽에 이 천룡사가 파괴되니 신라가 망했다고 한다.

지금 천룡사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은 천룡사지 삼층석탑이다. 석탑 인근에는 최근 새로 개설한 천룡사 임시 법당이 있다. 답사를 간 날에도 현재의 천룡사 신도들이 탑 주위에서 탑돌이를 하고 있었다.

천룡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됐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188호로 지정됐다.

1990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이 주관해 탑지 주변을 발굴하고, 무너져 있던 탑을 정영호, 장충식 등 고고학자들이 1991년 복원했다. 당시 조사 결과 기단이 1단임이 밝혀졌다. 없어진 기단 면석 8매 중 7매, 기단 갑석 4매 중 3매를 기존 석탑과 같은 재질의 돌로 보완했다. 상륜부는 전혀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남원 실상사 석탑의 상륜을 모본으로 해 만들었다고 한다.

천룡사지를 지나 남산 아래에 도착했다. 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과 부산한 사람들이 있다. 신라 불교의 면면이 남아있는 남산을 현대인이 오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 옛날 장인들이 보여준 삶의 치열함과 부처에 대한 애경심에 종교를 떠나 무한한 존경을 느끼기 때문이다.

겨울 해가 누엿히 저문다. 연재의 마지막은 강인숙 시인의 시 '남산-사사성장 탐방일행'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신라인들 /신이 내려온 산기슭마다 마을을 이루며 / 곱고도 아름다운 원을 / 연꽃 같은 마음으로 새기니 / 산굽이 굽이마다 절은 밤하늘 별처럼 맑고 / 탑은 기러기 날 듯 줄지어 서고 / 불상은 바위마다 그림자를 드리워 / 천 년 전 남산, 얼마나 화려 장엄했을까 <종략> / 어머니 품 속 같은 달빛 아래 / 절과 탑과 불상은 고요히 / 법열을 이루어 / 남산은, 밤에도 잠들지 않았으리" <끝> 경주 남산=신종일 기자



# 법왕 즉위 10주년 기념 평화 대법회



미산 천장

귀의삼보하옵고

(사)교단용화불교 총본산 옹호사에서 법왕 즉위 10주년 기념 평화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중정, 총무원장,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 소 : (사)교단용화불교 총본산 옹호사 법왕청 법왕궁

일 시 : 불기 2557년 12월 24일 (화) 오후 2시

### 법왕청 최고위원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법광
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법정
해동불교조계종	종정	지현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청암
대각교단총	재	태화
해동불교화엄종	종정	지엄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당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향운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혜성
(사)수산자비선원	이사장	법상
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법왕종	총정대행	보문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금조
한국불교근해동종	총무원장	정일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대정
호국호국사 지도법사	대정	영월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종정	대천
한국불교법륜조계종	종정	법륜
통합불교아마타종	종정	법안
해동불교달마종	종정	죽암
대승불교달마종	종정	청원
극락세계미륵종	총무원장	오작교
대한불교대광명종	총무원장	철암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종정	은곡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원각

한국불교불일조계종	총무원장	고석
대한불교일월종	총무원장	대원
생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진관
전통불교조계종	천룡암주지	혜운
한국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법상
대한불교극락지장종	총무원장	청해
대한불교조계종	세심사주지	세정
사)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사)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월

(사)교단용화불교 총본산 옹호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49-1 / 전화 043)253-7657, 011-469-2917(천장 직통)